주주제안 가치헤요 안내

- 비보존 주주연대 -

비보존 주주연대는 2월 중순경 첨부와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 서신을 회사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래 상법대로라면 회사는 해당 안건들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비보존의 경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의안상정가처분을 통하여 위 안건들을 총회에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법무법인 선임 비용 포함)을 주주분들과 함께 모으고자 하니,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모집 금액 : 4,400,000원 (부가세 포함)
2. 모집 주식 수 : 2,200,000주
3. 주주별 결제금액 : **각 참여주식 수 x 2원** (보유주식 중 일부만 참여 가능)
   위 금액은 다른 주주들의 참여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 목표 주식수의 2배가 참여하는 경우, 결제금액은 그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4. 결제시기 : **가치헤요 마감일에 목표 주식수의 모집이 달성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며, 미달성 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가치헤요에 참여하더라도 바로 등록된 카드에서 그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회사가 임의로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위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금된 금원의 1/2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6. 주주제안의 내용 : 첨부내용 확인
   단, 주주제안의 실제 내용은 주주연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보존 주주행동 제안문

1. 들어가며

비보존 소액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가 매우 컸던 2019년,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겪고 "축배의 타이밍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이두현 회장의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코로나로 인한 미국 임상 중단, FDA의 전임상 요구로 인한 임상 지연 등 2022년까지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 2023년 초 오피란제린 한국 임상3상에서 비마약성 진통제로서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증적으로 입증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 공지문과 주주총회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이전, 그리고 상장 준비 등이 하나도 가시화되지 않아 저를 비롯한 많은 소액주주 분들의 가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피란제린의 진통 효능이 확증적으로 입증되었음을 발표한 공시가 장마감 후에 나온 2023. 2. 7. 종가는 12,130원으로 2023년 폐장일인 2023. 12. 28. 비보존 종가인 8,660원 보다 높았습니다. **28.61% 하락**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KOSPI 지수는 2023/2/7 2,451.71 pt → 2023/12/28 2,655.28 pt로 **8.30% 상승**하였고, KOSDAQ 지수는 2023/2/7 772.79pt → 2023/12/28 866.57 pt로 **12.14% 상승**한 것에 비하면 주가가 되려 떨어진 것은 매우 초라한 결과입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두현 회장이 그토록 강조하던 임상3상에서의 확증적 효능이 입증된 이후의 주가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보다 더욱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주주행동을 제안하는 2024. 1. 30. 비보존의 종가는 무려 7,870원으로 임상3상 성공 공시 직전보다 **35.1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진통 효능이 확증적으로 입증되어, 이두현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90년대 소염진통제인 Celebrex가 허가 받은 이후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처음으로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이 입증"[1]되었고, 오피란제린 외용제 국내 임상2상에서 안전성과 탐색적 효능이 확인되었으며, VVZ-2471이 사람 대상 임상1상에 돌입하여 투약이 완료되었고, VVZ-3416이라는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전임상에 진입하면서 단일 파이프라인이 약점으로 평가받던 비보존이 적어도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주가는 이러한 성과가 있기 전보다 더 낮아

[1] 메디컬타임즈, 「비보존제약,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발표로 입증」,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449

진 걸까요? KOSPI와 KOSDAQ이 상승하였고, 훌륭한 성과를 보인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회사에 정기예적금이라는 단기금융상품이 238.7억 원 있음에도 그 가운데 218.7억 원이 이두현 대표이사와 그의 동생이자 비보존 이사인 이창현 이사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볼티아에 담보로 제공되어[2] 운영자금이 모자라 6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오피란제린 성공의 관건인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언제든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자금조달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면 2023년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따른 우려감의 상존? 그것도 아니라면 비보존이 에스텍파마의 지배 하에 있었던 2014년도부터[3] 나온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이전 논의가 매년 '가속도'가 붙고 있다거나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한 건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보여주지 못하여 시장의 신뢰가 전혀 없는 것?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정답일 수도 있고, 셋 다 정답일 수도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주주들은 충분히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텔콘RF제약이 최대주주이던 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과 "윈윈"이라는 이두현 회장의 말을 신뢰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상 관리의 문제와 전임상 문제만 해결되면 신속하게 임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였으며,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공지문과 보도자료만 믿으라고 하여 "2023년도에는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2023년 초의 공지문을 신뢰하였고, "연내 기술이전 그 다음에 최소 내년에는 상장"이라는 제15기 비보존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회사 비보존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응대하거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리라 몇 번을 선해(善解)하더라도 오피란제린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도대체 작년 회계감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당자를 선임해서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왜 묵묵부답인지, VVZ-2471의 임상1상 결과는 어떠한지 등 주주가치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 소유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는

---

[2] 2023년 3분기 비보존 분기보고서 기준, p. 142.

[3] 한국경제TV,「에스텍파마 "비보존 개발신약에 빅파머 관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412090489

지, 코로나로 인한 임상 중단 전 미국 임상3b상의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전성 요건 충족을 위한 임상시험 투약군 규모를 FDA와의 미팅을 통해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고자 하였는지,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제형을 왜 또 한 번 더 변경하려 하고 있는지, 비보존 제약이 오피란제린 주사제 직접 생산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난데없이 왜 처분하였는지, 왜 오피란제린 경구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는지, 기술이전 논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미국 임상3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장 3분기 말 기준으로 비보존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8억여 원 정도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급여를 주고, 연구를 진행하여 회사가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성장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볼티아-비보존 제약-비보존으로 이어지는 이두현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주주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두현 회장의 말을 신뢰한 2023년 한 해, 기대가 있던 자리에 실망과 후회가 점점 더 크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보존의 주주와의 소통 부족,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경영상 결정, 공언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자주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주주들이 지금까지 '오피란제린'과 '다중 타깃 플랫폼'이라는 비보존의 기술만 믿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샅샅이 확인하거나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보존의 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받고 소액주주의 주주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지금, 비보존의 소액주주들이 뭉쳐 주주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총회 전까지 아무리 비판하고 욕해도 주주총회에 가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박수만 치고 돌아온다는 조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2. 주주행동 제안사항

가. 기본사항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는 1주만 보유한 주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낮게는 1%(제367조, 제403조 등), 적어도 3%는 되어야 합니다(제363조의2, 제366조 등). 또한 이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건이 아니므로 실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지분이 모여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 혹은 최대주주를 견제하는 방법은 (i)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나 (ii) 회사가 내키지 않아 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한 많은 주식이 모여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3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비보존제약 및 이두현 대표이사, 이창현 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892,052주로 전체 주식의 27.12%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4] 아울러 텔콘RF제약이 4,394,690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은 15.10%입니다. 그 외 16,817,681주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으로 이는 57.78%에 해당하는 지분율입니다. 텔콘RF제약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서 셈법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소액주주들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여 일관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면 회사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나.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의 부결

매년대로면 2024년 제16기 비보존 정기주주총회에 (1) 제16기(2023. 1. 1. ~ 2023.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2) 이사 보수 한도 승인 (3) 감사 보수 한도 승인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이 상정될 것입니다.[5] (1)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찬성하되, (2) ~ (4)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어 소액주주들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주주행동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IR 담당자(이하 '주담')가 "회사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주주가 회사와 이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시대정신과 일치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다.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한 안건 상정 (「상법」 제363조의2)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비보존 주담은 소액주주들이 함께 모여있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 잠입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픈채팅방에도 주주인증 절차를 거친 뒤 들어가 있고, 2023년 6월에 단체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많은 주주분들께서 가입하신 헤이홀더 어플에도 주주인증을 하여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배포하고 공유될 이 문서에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의 부결을 목표로 하는 주주행동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상정할 안건 이외에 그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

---

[4] 2023년 3분기 비보존 분기보고서 기준, p. 196.

[5] 이두현 대표이사, 박지원 사외이사, 김연봉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6. 3. 29. 로 이들에 대한 선임 안건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이 아니며 이창현 이사, 정상희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일도 2025. 3. 28. 로 마찬가지임. (2023년 3분기 비보존 분기보고서, p. 200.)

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주주행동의 내용은 적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재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그 중 일부는 착수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잔고증명서를 통해 인증한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공개합니다.**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이창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

- 제안의 이유
  - 이창현 사내이사는 '부회장'의 직위를 달고 있고 비보존의 '재무총괄'을 담당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창현 사내이사의 선임 이유로 (i) 비보존의 창립 멤버(founding member)인 점 (ii) 설립 이래 15년간 비보존의 재무관리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i) 비보존은 이제 설립 17년차의 회사이므로 언제까지고 창립 멤버를 이사로 두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하등 없고 (ii) 불리한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 및 임상3상 성공 이전보다 더욱 하락하는 주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하향조정(리픽싱)으로 인한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 사내이사 개인 소유 회사에 대해 200억 원이 넘는 담보 제공,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 향상에 핵심이 되는 사업인 오피란제린 미국 임상 중단이라는 재무적 결과를 고려하면 재무총괄로서의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에 선임 이유로 제시한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에 더하여 경력이라고는 도서출판 청노루라는 출판사를 하나 운영했던 것이 전부인 자가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비보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며, 도서출판 청노루는 폐쇄된 법인 등기조차 조회가 안 되고 있어 이력의 실제조차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창현 사내이사는 추후 신약 출시 및 연구개발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효율적인 재무구조 마련이 절실한 비보존의 사내이사로서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더욱이 전직 비보존 임직원에 따르면, 이창현 사내이사가 지나치게 회사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출에 대하여 과할 정도로 터치하며 인사 부문에 대해서도 이창현 이사의 개입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혁신적 연구 성과 도출이 필요한 회사의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창현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제안합니다.

(2) 신규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안의 이유

  - 현재 비보존의 이사회 구성은 형제 관계인 사내이사 이두현과 이창현, 그리고 회사의 뜻으로만 선임된 사외이사 정상희, 박지원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가 전체적인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대주주와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3분기까지의 이사회 결의를 살펴보면, 정상희 이사가 1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져 사외이사로서의 적절한 견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이 미국 임상과 같은 회사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대표이사 이두현 및 사내이사 이창현이 소유한 개인회사 '볼티아'의 대출에 대하여 200억 원이 넘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담보 제공으로 인한 단기금융상품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비보존은 운전자금이 부족해 작년 초 불리한 조건(만기이자율 15%, 리픽싱 최저한도 500원 등)으로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반복되면서 전환가액이 지속적으로 햐향조정됨에 따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더욱 희석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전환사채에는 발행 당시의 최대주주 지분율과 동일한 27.78% 만큼의 콜옵션이 부착되어 있어 소액주주와는 달리 최대주주는 지분율 희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안건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이사회 구성이 오로지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액주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회 구성은 최대주주의 전횡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곧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사외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비보존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하여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을 제안합니다.

  -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 권동훈**

    ■ **비보존 소액주주연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 비보존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경영진 견제를 위한 후보자로 제안함.**

■ **약력**

- **1999년 7월 23일 생**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23년)**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2023년 ~)**
- **법무법인(유한) 지평 인턴 (2024. 1.)**

(3)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제 배제 → 적용 (정관 제35조 제3항)

1) [정관 제35조 제3항]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

2) [제안의 이유] 지금까지의 이사회 구성이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추후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 소액주주의 회사 견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나) 대표이사의 주기적 보고 및 소통 규정 신설 (정관 제45조)

1) [정관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주주들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회사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경과를 보고하며 주주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2) [제안의 이유] 소액주주들이 비보존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점은, 회사 사업의 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고 매번 '비밀유지계약'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카페를 이용한 질의응답 역시 주주들의 요청을 이유로 중단하였으나, 재개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은 묵살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주주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소통의

부족을 인정하며 "담당자를 선임해서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담당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실도, 소통이 강화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매 분기 주주들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정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주총회 외에는 대표이사와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대표이사 의중에만 달린 불규칙적 공지문을 통한 일방향적 소통만 가능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위와 같은 정관 규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다) '자기거래위원회' 설치 및 필수적 승인 의무 규정 (정관 제40조)

1) [신설] **⑤ '상법' 제398조 등 자기거래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자기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위원회의 결의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제안의 이유] 2023년 1분기 ~ 3분기 소집된 6차례의 이사회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차례의 이사회에 '자기거래 승인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었고,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이와 같은 잦은 자기거래 승인 안건 통과는 이례적인 일이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법적/오너 리스크로 회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볼티아에 담보를 제공한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자기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기거래 승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오로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거나 자금이 집행되는 것을 막고 사외이사를 통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회사 자본의 건전한 운영 및 위험 통제를 도모하고자 상기 정관 규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라) '전자투표제' 도입 (정관 제31조의2 신설)

1) [정관 제31조의2(전자투표제)] 주주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안의 이유] 비보존의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몇 년 동안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통제의 장벽을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관에 전자투표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적 방법으로도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해당 조항을 제안합니다.

3. 회사 측에 전하는 말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 측도 주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할 것이고, 대책을 논의하든 불필요한 일을 만든다며 비난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정당하게 요청한 주주명부에서 주주들의 이름을 일일이 가려 준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음의 질문들에 한 번쯤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주주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쌍방의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예상했던 시점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그것조차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연내"라고 했다가, "이르면 연내"라고 했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라고 하면서 기만적으로 주주들을 대우한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몇 시간, 며칠을 들여 한 질문을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이 누구입니까? 공지문과 보도자료만 믿으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 주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공지문을 쏟아내면서 주주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문도 내지 않고 1년에 120만 원을 내고 구독해야만 볼 수 있는 바이오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여[6] 어떠한 내용인지 주주가 알 수 없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고자 전화한 주주에게 거의 대부분의 대답을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한 주담이 어느 회사 소속입니까?

4. 주주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가. 주주행동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주행동을 함에 있어 많은 부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장 신약개발회사 비보존에 투자하신 소액주주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이해관계나 자금사정이 모두 다른 만큼 도중에 일부 주주께서 이탈하실 수도 있고, 시간적 손해와 재산적 지출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이기에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

[6] 한국경제 BIO Insight,「비보존제약, 국내 3상 마친 '오피란제린' 품목허가 총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311466i

으면 갈등과 충돌, 그리고 분열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회사만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행동에 동참하는 주주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실 수 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하며,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상에는 주주행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또는 임원진 등에 대해서는 현저히 위임의 본지에 반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신뢰하고 따라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인 취지와 그 궁극적 목표를 결코 잊지 않고 소액주주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리라는 일념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주주의 결집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어 주주행동에의 동참 여부를 결정하시고 실제로 이어질 후속 조치들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나. 주주행동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간과 법률적·회계적 지식이 모두 충분하다면 법률대리인의 선임 없이도 주주행동을 전개할 수 있겠지만, 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인의 발빠른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주주행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펌에의 사건 위임이 필수적입니다. 그 말은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에도 법무법인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소수의 사람들만 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어 효과적인 주주행동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도리어 주주행동의 궁극적 취지와 목적이 몰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주행동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지출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을 반드시 알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헤이홀더의 '가치헤요' 시스템을 통하여 이 부분을 가능한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주행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주주님들로부터 주주인증과 위임을 받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둘 생각**입니다. '가치헤요'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참여해주신 주주분들께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나, '뭐 없나'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사람을 배제하며 단계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함께 모인 주

주들에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후 보고와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료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주주행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나가며

비보존 소액주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이유로 비보존에 투자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인류에 도움을 주는 신약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마음일 수도 있으며, 미국 임상 결과 발표와 상장을 통한 시세차익 내지는 엑싯(exit)의 기회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각자의 계좌에 '비보존(276620)' 주식이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모두 비보존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비보존이 성공해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단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만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면피용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시간 남짓한 시간만 어떻게든 견뎌내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힘든 만큼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검토,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주식회사 비보존 주주 권동훈(녹지의파수꾼) 올림